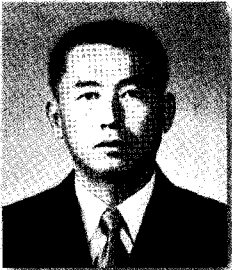


# 소나무 적심, 단엽(短葉) 요령



하태주 | 이학박사  
천안연암대학

소나무는 예로부터 절개와 군자의 상징으로 여겨왔으며, 나무 중 최고로 여겨왔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육하고 있는 붉은 수피를 지닌 소나무그림은 군왕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궁궐, 왕 뒤 병풍에 있는 일월오봉도에 그려진 소나무는 시대나 그려진 화원(畫員)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줄기의 붉고 굵은 자태가 충분히 군왕을 대변한다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소나무는 조상들의 삶과 애환, 문화 등 정신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열이 깃든 나무로 우리민족이 사랑하는 나무이다.

근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나무를 적송, 육송, 낙락장송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나 대표이름은 소나무(松)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적송(赤松:아까마쯔)이라는 명은 일본식 한자표기로 붉은색 소나무라는 뜻이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육송(陸松)이란 말은 바닷가가 아닌 내륙에 많이 생육하고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며 낙락장송은 근거가 불확실 하나 옛시조에 나타나는 글을 인용하여 부르는 것 같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여송(女松)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소나무의 잎이 곱솔(해송)에 비해 부드럽고 여성스럽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소나무의 이름이 이렇게 많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혼돈되기 쉬울 뿐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도 제각각 다르고, 특히 조경회사에서 전정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달라 의뢰자는 이름뿐만 아니라, 가꾸는 방법까지도 혼돈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소나무를 가꾸고자 하는 사람과, 정원에 심겨진 소나무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수형과 가꾸는 목적에 맞게 적심전정요령을 알리고자 한다. 이를 참고하여 소나무를 수격(樹格)에 맞게 가꾸었으면 한다.

## 첫째. 소나무의 적심, 단엽 목적은

재배되고 있는 소나무의 잎과 가지를 짧게 하여 수격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나무는 고정생장

(1년에 한마디 생장)하는 수종이므로 전년의 동아(冬芽)에 이미 올해 자라날 새순의 길이, 잎의 길이 등이 정해져 있어 특별한 경우(이식, 심한 가뭄, 물리적 피해)가 아니면 동아에 정해져 있는 정보대로 새순이 생장하게 된다. 보통 소나무의 새순은 6월말이 되면 신장생장이 멈추게 되는데, 길게는 1m를 넘게 자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30~45cm 정도 자라게 된다. 1년에 이렇게 길게 자라려면 완성목의 경우 몇 년 지나면 수형이 일그러져 수적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므로 적심전정을 하여 2차 생장지를 발생시켜 가지의 길이를 짧게 한다.

또 잎의 생장은 8월 말경에 신장이 끝나게 되는데 적심전정을 하게 되면 하는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잎의 길이도 짧아지게 된다. 적심전정을 하지 않을 경우 소나무의 잎은 보통 20cm정도 자라게 된다. 그러나 적심전정을 하게 되면 5~7cm정도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적심, 단엽전정을 할 경우 새순의 길이는 10cm내외, 잎의 길이는 5~7cm로 신장하게 되므로 가지의 길이와, 잎의 길이가 짧아지며 잔가지의 밀생도가 높아져 수적이 향상되고 관상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 둘째, 소나무 적심, 단엽시기이다.

보통 소나무의 적심 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차생장지가 동해의 피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심전정은 정원수 뿐만 아니라 분재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술인데 분재에서는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분재의 경우 시기가 빠르면 적심전정의 효과를 적게 보게 되고 늦으면 2차생장지의 발육이 늦어 동해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분재의 경우 적심전정 후 잎에 수분증산억제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는 수분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증산억제제를 살포하는 것 보다는 수목 활력제를 살포하는 것이 2차생장지의 발생에 유리하다. 증산억제제를 살포하게 되면 새순이 전정된 후이므로 지상부에서는 많은 수분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굳이 증산억제제 살포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관수를 하게 되면, 지상부의 증산작용이 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수분이 공급되면 토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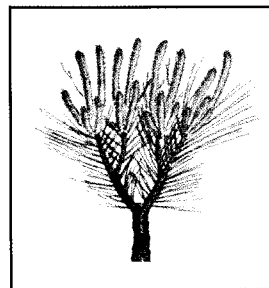
습에 의한 뿌리의 호흡곤란으로 생리장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증산억제제는 가능한 살포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셋째, 적심전정 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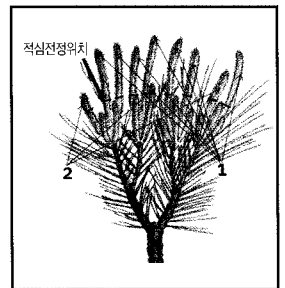
적심전정이 끝나면 주변 흩어진 가지와 신초를 모두 모아 정리한다. 적심전정 후, 2주정도 지나면 소나무 잎 사이에 조그만 생장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제법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은 8월 하순부터 9월에 걸쳐 2차생장지 중 세력이 비슷한 2개의 평행지만을 두고 제거해야 결합이 없이 건강하게 잘 생육할 수 있다. 2차생장지를 선별하지 않으면 통풍과 채광 불량으로 인하여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고 내부에 부패되는 잎과 가지가 발생된다.

### 넷째, 재배 방법에 따른 적심 전정 요령

**방법 1.** 소나무, 반송 등 어린유목의 경우 1차생장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고와 수관폭이 크고 넓어지게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어린시기부터 적심전정을 실시하면 잔가지 밀생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상품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므로 불리하다. 그러므로 반송의 유목은,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자라게 한 후 판매하고자 하는 크기에 다다랐을 때 1~2년을 남기고 같은 수관선에 맞추어 적심전정하게 되면 수관선 전체가 둥글게 된다. 1차생장지 중 세력이 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세력이 강한 1차생장지에서 2차생장지가 발생(그림에서 숫자 1)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2차생장지는 신초의 길이가 짧고 잎의 길이도 짧아진다. 그러나 세력이 약한 1차생장지에서는 2차생장지가 발생하기 힘들(그림에서 숫자 2)며 잎이 긴 것이 흠이다. 기타 적심전정 위치 밑에 있는 세력이 약한 1차생장지는 잎의 길이가 길어지고 내년의 겨울눈이 커져 세력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나 전체를 둥근 모양으로 하기위한 수형 조절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적심전정 방법이다.



5월 중순경 신초생장 모습



5월 중순경 판매 1~2년 전 적심전정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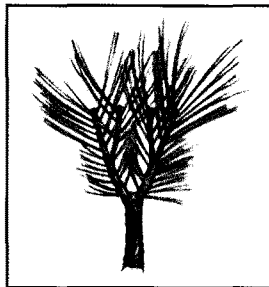
소나무 조형목을 만들기 위한 경우도 수형조절 위해 유인한 후 수형이 고정되고 일정수고에 도달했을 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심전정을 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 적심전정을 하게 되면 가지 하나하나가 가이즈카 향나무처럼 될 수 있으므로 1~2년 적심전정을 한 후 다른 방법(2)을 통해 이루어져야 소나무 고유의 수형을 유지 시켜줄 수 있다.

**방법 2** 정원수나 분재로 완성목일 경우 1~2년에 한번 씩 적심전정을 실시하여 수고와 수관폭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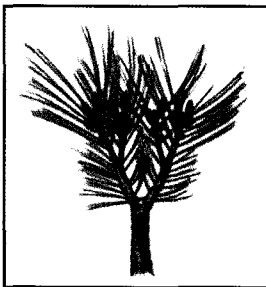
이때는 새로 나온 순과, 잎 사이의 아주 작은 1차생장지 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적심전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해 자란 선단부와 올해 자란 경계에서 적심전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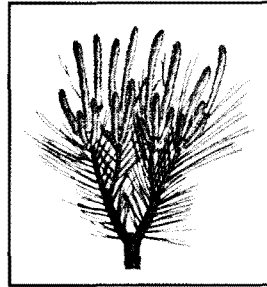
적심전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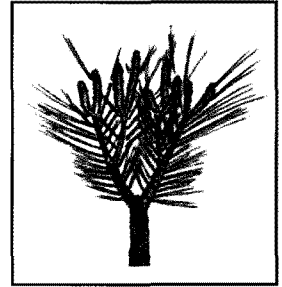
적심전정 후 2차 생장지 발생 모습

적심전정 후 약 2개월이면 2차 생장지의 신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2차생장지 중 세력이 강한 것, 세력이 약한 것은 제거하고 중간정도의 새순 2개만 남긴다.

**방법 3.** 해마다 적심 전정을 하게 되면 수목의 세력이 약해져 새순의 발생이 지연되고 병해의 피해도 많아지게 된다. 이럴 경우 1차생장지 중 세력이 강한 순을 제거하고, 세력이 중간정도 되는 새순을 남기면 세력을 회복시킬 수 있고 수관 폭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세력회복을 위한 순고르기 적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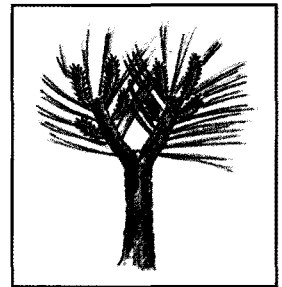
순고르기 적심 후 새순 모습

이 방법은 1차생장지의 길이는 많이 자라지 않으나 앞의 길이는 정상적으로 자라 앞이 길게 되는 것이 흠이다. 그러나 내년에 적심전정을 하게 되면 좋은 수격을 갖출 수 있다.

또 세력이 급격히 쇠약해진 경우에는 새순 모두를 그대로 신장시킨 후 내년에 적심전정 위치를 올해 적심전정 해야 할 위치에서 실시한다. 이럴 경우 세력이 회복 될 뿐 아니라 수세가 강해지고 병해의 피해도 줄어들게 된다. 이 방법을 통한 적심전정 후에는 앞의 방법 2와 같이 2차생장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수년에 한번씩은 이 방법을 통해 적심전정을 하면 수세회복과 2년간 성장한 가지를 한 번에 갱신 할 수 있다.



세력회복을 위한 2년지 적심전정



적심전정 후 2차생장지 발생 모습

**방법 4.** 정원수나 분재에 있어 세력 불균형이 많을 때 특히 분재에서 휴면기 잎뽑기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체수형에서 세력이 약한 1차생장지부터 적심전정을 실시하고 1주일 이 지난 후 중간세력의 1차 생장지를 적심전정 한다. 다시 1주일 후 세력이 가장 좋은 1차생장지를 적심전정하면 된다. 이 방법을 통해 적심전정을 하게 되면 불균형 된 세력을 조절하여 일정부분 세력조절을 꾀 할 수 있으나 소나무 한주를 세 번에 걸쳐 적심전정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많은 양의 소나무를 적심전정 할 경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가정에서 1~2주 정도는 가능한 적심전정 방법이다. 